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입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푸른동산 가꾸기

### 4월5일 한티 공원 식목행사

새 예배당 신축후 우리는 당국의 사용허가(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내외를 정리하고 가꾸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동안 정리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제 모든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 때에, 푸른 동산 꽃동산 만들기 식목행사를 오는 4월5일(목) 식목일에 서울교회 옆 한티 공원에서 갖게 된다. 우리 교회 스테반회 주관으로 산림청(청장 신순우 집사)과 강남구청(청장 권문용)의 협찬으로 이루어질 이날 행사에는 산

림청이 제공하는 산철쭉 300그루, 배롱나무 30그루, 좁작살 나무 50그루, 낙상홍 50그루, 소나무 150그루, 등 도합 580 그루를 식수케 된다. 푸른 동산 꽃동산 만들기 행사에 참여할 성도들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작업복 차림으로 푸른 마음을 갖고 한티 공원으로 나오면 된다.

### 인터넷 선교방송 뜬다

기독교 인터넷 방송과 호산나TV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상황이 방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교회 멀티미디어 팀(팀장 조철기 집사)은 실업인 선교회(회장 이영기 장로)의 후원으로 국내외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 가입하였다. 우리교회가 가입한 인터넷 방송국의 인터넷 주소는 '기독교 인터넷 방송' - (<http://www.c3tv.co.kr>)이고, 또 하나는 '호산나TV' - (<http://www.hosannatv.net>)이다.

### 지난주 이모저모

#### 각 교회학교의 분반공부



유년부 - 가족예배를 드린후...



초등부 -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장년4부 -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 목회자 신학세미나 전단 발송



중등부의 찬양의 시간



장년5부-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욱 열심히

### 전군 군목에게 목사복 기증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군목 309명에게 목사복을 한 벌씩 기증했다. 군선교를 일선에서 맡은 이들이 목사복을 착용함으로써 복음증거를 가지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목사복은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2년간 연구 기간을 갖고 제작한 것이다. 이번 목사복을 기증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오정수 장로(243벌), 김종자 권사(33벌), 김사무엘 장로(3벌), 제1권사회(20벌), 나미용 집사(10벌)로 도합 309벌이다.

### 목회자 신학세미나 봉사의 손길 필요

제1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봉사할 많은 손길을 기다린다. 식사준비 및 배식, 방송장비 점검, 주차안내 및 차량관리 안내,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청소 등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한국교회에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세한 봉사문의 및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 응접실이 열린다

교회 봉사자 또는 방문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행정실(사무국)을 찾게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무행정의 방해로 피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실 옆방(104호)을 응접실로 꾸미고, 그 곳에서 인터폰을 누르면 도움을 받게 된다. 응접실에는 봉사를 위해 오는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 글로리아 중창단 신입단원 모집

교회 내 각종 찬양 집회를 인도해온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새로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35세에서 40세의 여성 성도로 기타연주가 가능하거나 새롭게 기타를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분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 이번주의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소서 (개역개정판 시편 6:4)  
Turn, O Lord, and deliver me; save me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Ps 6:4)



# 너희는 나의 증인

이사야 (43:8 - 13)



이중운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힘입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신의 신성을 증거 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같은 사례를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 1.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택함을 입었나니"(10절).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자기를 증거 하게 하셨습니다(행 14:1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기 하기 위함'(사 49:6)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벧전 2:9 - 10).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으시려고 택하여 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친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 영이시니"(요 4:24), "하나님이 참되시다"(요 3:33), "하나님은 빛이시니"(요 4:24).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 하십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 6:30),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설명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요 5:17),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시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증거는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이고, 이같은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증인이 되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first hand information)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요 19:11) 오신 분이시고, 처음부터(눅 1:13) 계신 분이시며, 새롭게(요 3:3) 하시는 분으로서 위에서 오신 분(요 1:18)이시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요 16:28).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자원하여 하는 증언입니다. 묵비권을 주장하는 증인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요 3:32), 성경의 말씀으로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여 확고한 증거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요 3:33).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 내신 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그의 증거는 확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11 -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와 나 외에 구원자 없느니라"(11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10절).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을 위한 속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거는 교회가 하고 예수님이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 2. 하나님께 대적하는 증인

불행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상을 만

들고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8절). 그들은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에게 옳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다고 결국은 스스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신론자들은 곧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회의론적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시 14:1)고 마음에 의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세상에 선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이들은 나중에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며 결국에는 무신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화론자 몰탈론자(Animism)들도 무신론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실제적인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 혼합주의자,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 3.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역사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13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파송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위대한 계시였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사역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한 초석이었고 장차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귀신도 우상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는 사악한 것이며 허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증으로서 그분을 증거 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단기선교팀 파송지 -태국 치앙마이 소개-

우리 서울교회가 오는 8월 13일부터 22일 까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태국의 치앙마이(태국어로 새 도시란 의미)는 인구 155만 명의 치앙마이주의 州都(쨥왓)로 방콕에서 700km 떨어져 있으며 열차로 12시간, 비행기로 약 1시간 걸린다. 현재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는 태국 제2의 도시라고는 해도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관광객의 증가와 교통의 중심지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곳에도 약 200여명(가족포함)의 우리 한국인들이 선교와 생업을 위해 거주하고 있다.

치앙마이 도면적의 69.31%가 삼림지역이고 1,050개에 달하는 고산족(Hill Tribes) 마을이 산재해 주변의 높은 산에서부터 낮은 구릉에 이르기까지가 이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삶의 터전을 산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족속이 많아서 이들은 선교사역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이곳 치앙마이는 남쪽의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의 주변국(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들을 이어주고 멀리 한국의 부산에 까지 이르는 아시아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치앙마이는 태국 북방선교의 센터역할을 할 아주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 불교의 중심지로 매주 일요일과 불교휴일에는 각 사원에서 청년 중심의 각종 집회가 열릴 정도로 주민의 관심

도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사원을 볼 수 있고 향냄새를 맡을 수 있다. 모든 가정이 집에 부처를 섬기는 작은 제단(싼파폼)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 분향을 할 정도로 불교는 이들의 삶의 전부로 불교가 이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삶의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태국의 제2의 도시이며 북방선교의 중심지인 치앙마이,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야 할 곳으로 성령께서 못 심령에 임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가 요청되는 곳이다.

유태서 (편집부)



## 故 장경순 집사 추모 시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별써  
천상의 언어로  
이야기 하시나이까?

해처럼 밝은 얼굴로  
아멘 아멘 외치던  
당신의 순결한 언어가  
이 땅에 흩어져  
우리 상한 가슴에  
"화살처럼 꽃히나이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이까?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그 나라!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고향길 하시나이까?

밤알같은 눈물  
밤새 흘러  
새벽이 되었나이다.

지금은  
황금길을 지나  
생명강가에서  
새노래를 부르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당신!  
편히 가소서  
편히 쉬소서

신동기 권사 (3교구)

## 70인 전도대 보고

### 조선영 집사 (12교구)

토요일이 되면 더욱 바쁘고 기쁨이 넘친다. 3시에 605호실에서 70인 전도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간을 쪼개 교회로 향한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지난주간 전도보고 내용을 듣고 전도지, 순례자, 말씀테이프 등등을 들고 나간다.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주중에 전화심방과 방문할 것을 약속한다.

반포동 반현동 대치동 분당 동해시 태백시 부천 등 여러 지역의 많은 태신자들로 나의 태신자 수첩에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더불어 기도제목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교회 안에서 가족중 혼자만 믿고 자신들의 가족을 태신자로 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을 찾아 태신자 카드에 올리고 전화와 이슬비 전도편지를 발송하고 기도와 직접 심방하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로 노상이나 지하철, 버스에서 내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매우 많으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 그들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사명과 기쁨과 기회와 영혼 사랑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많은 양, 강도 만만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찾기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늘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 새로 왔어요

#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 김복승, 김현숙 집사(1교구)

▶언제 등록하셨어요?

서울교회 반포동 시대 마지막 주일인 작년 1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입당하는 줄 알고 등록했지요. 어느날 집 앞에 교회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동안 못 쌓은 새벽기도를 쌓으라는 명령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동안의 교회생활이 궁금합니다.

은 식구가 모태신앙이라 안일한 적도 있었으나 매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가정원에 근무하여 전국적으로 직장 따라 이사하고 교회도 옮기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혼 직후 부산에서 수년간 지내며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적 성장과 은혜 체험했고 특히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의 '선물'이란 단어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나니 반목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가끔 서울에 오면 충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공은 목사님의 말씀도 들리 데임도 많이 구입해 구역식구들에게 나눠주곤 했지요. 남편은 그 등부 교사로 저는 구역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느끼신 점이 많죠?

기도의 어머니이신 영로하신 권사님들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계신 것이 인상적이었고 목사님의 명쾌하게 정리된 말씀과 채찍을 통해 신행일치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함축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새가족 다락방을 통해 많은 새가족들과 기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직장 따라 옮겨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남편은 100% 애들에게 맡기는 반면, 저는 하나하나 챙기는 스타일이라 좀 힘들었지만 아들(평우, 24세)과 딸(희재, 22세)이 잘 자라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탐방-어린이예배**

# 어린이 예배 - 믿음의 기초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98년 2월에, 수요일예배는 98년 5월에 시작되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 수요일예배와 주일 저녁 찬양예배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기자가 지난 수요일 어린이 수요일예배를 탐방하러 갔을 때는 학생 3명, 교사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수요일예배는 학생이 더 적어서 25명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5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운돈 목사님은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주일에만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소위 Sunday Christian으로 자라게 될까 심히 우려가 된다고 하신다. 그리고 예배가 점점 폐하여 지는 오늘날에 어린이 수요일예배와 찬양예배로 인하여 기독교 교육의 진실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지난 수요일 수요일예배에 참석했던 학생 중 하나인 강훈이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가정의 학생이었다. 강훈이는 작년에 충청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고, 서울교회를 다니면서 수요일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주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강훈이는 집도 먼데 수요일예배에 나오는 일이 귀찮지 않느냐는 질문에 올 때 마다 귀찮지만 예배가 있는데 와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수요일예배에 나오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나름대로 간증을 한다. 어린이 예배는 부장에 임옥균 집사, 부감에 김혜연 집사, 임송자 집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몇 분의 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분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학생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며 특히 주일 찬양 예배에 유-초등부 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수요일예배는 수요일 저녁 5시, 찬양 예배는 주일 저녁 5시에 102호 미스바 홀에서 드린다.

예배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요즘 신앙 교육 이야말로 산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인성이 바로 되지 않은 아이에게 조기 교육은 무엇이고 수 백만원 짜리 죽집게 과외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린이 예배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허 숙 (편집부)**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희 전도사



수요일예배에도 많은 어린이가 참석하기를 원한다.

## 사순절의 기도

문형순 집사 (4교구)

주님의 은혜로 5년8개월의 지방생활을 접고, 사랑하는 서울교회로 돌아와서 맞이하는 이번 사순절은 많은 감회와 함께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영혼보다 때로는 욕을 따르고, 영과 욕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 죄인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중의 괴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반목하는 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5:15)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강남 OCU(기독교교회) 성경공부를, 오후에는 장신대 신대원 강의를, 수요일 오전에는 한남 CBMC 성경공부를 정기적으로 인도한다. 22일(목)에는 비전2020운동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전기섭 장로(2교구)는 컴퓨터 교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19대기증
- 이양철 집사(김미향 집사 11 교구) 기도실 기도책상 9개 기증
- 주정숙 성도(5교구) 청사복(음식점)을 과천에 개업
- 홍성호 유명신 성도(4교구) 3월14일 득남
- 김양희 집사 (1교구) 씨엔씨 텔레콤 살롬 지사 개업
- 이관규 집사, 이순영 집사 (9교구) 하일동에 상가주택 신축기공예배 19일 (월) 오전 9시에 드린다.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새 벽 5시 30분	

■ 교회약도

